

'문화예술로 물들고 관광으로 꽃피우는 전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 4대 추진 방향 제시

전주시가 올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 도시로 대도약하기 위해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다양한 복합시설을 조성해 시민과 예술인, 관광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신년 브리핑을 통해 '문화예술로 물들고 관광으로 꽃피우는 전주'를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4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4대 추진 방향은 △문화예술로 만드는 문화산양도시 전주 △지속가능한 매력 관광도시 구축 △후박재 조선의 분향 왕의 궁원 전주 역사관광도시 육성 △대한민국 명품 스포츠 관광도시로의 도약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각각 올 상반기에 개관 예정인 '완산방커 더 스페이스'와 서브컬처(소수문화)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문화공간장 작당' (남부시장 옛 원예공관장 2층) 등 시민들에게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문화콘텐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예술인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일례로, 시는 이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아트페어'를 개최해 연차별로 음악·미술·연극·문학 등 지역예술인들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등 현장 유통 촉진을 계획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팔복예술공간 야간관광경관명소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전주관광 케이블카 설치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등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또,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여름밤 열정의 축제 '전주얼티미티페스티벌(JUMF)' △전주에서 시작된 시원한 맥주 축제 '전주가맥축제' △전주의 대표 미식축제 '전주비빔밥축제' △'전주문화재야행'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에게 풍부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 민선8기 공약사업 '의공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왕의궁원 마스터플랜 수립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전주 고도(古



전주시가 올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대도약하기 위해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다양한 복합시설을 조성해 시민과 예술인, 관광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은 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신년브리핑.

都) 지정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이 향유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전주만의 문화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끝으로 시는 체육시설의 집적화와 관광과의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주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전주실내체육관 △국제수영장 등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을 확충하고, 2024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대회와 '대통령배 전국수영대

회' 등 크고 작은 전국·국제 대회를 개최해 체육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4년은 전주시 문화관광 분야의 전반기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전주가 '문화예술로 물들고 관광으로 꽃피우는 전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대상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겨울방학을 맞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했다.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는 겨울방학 동안 전주지역 지역아동센터 20여 곳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기에 올바른 건강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구강·

음주 예방·영양·운동·흡연 예방에 대한 교육과 체험 등으로 운영된다.

보건소는 먼저 참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치아 홈 메우기와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예방 진료와 충치 치료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 칫솔 등 구강 위생용품 제공하고 칫솔질 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 올바른 구강 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건강한 식생활 교육과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인스턴트 식품의 열량과 6대 영양소 교육 및 음식자방 모형관람(영양교육), △청소년기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교육 및 음주 가상 고글 체험, 음주 퍼즐(음주 예방 교육), △담배 유해 성분(전자담배 포

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알아보기(흡연 예방 교육) 등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구강·음주·흡연 예방, 운동, 영양(비만)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겨울방학 동안의 경험이 건강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식 및 행동 변화를 이끌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중앙동 새마을부녀회, 새해맞이 떡국 봉사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안상숙)에서는 새해를 맞아 9일 관내 중앙경로당을 찾아 40여 명의 어르신에게 떡국으로 점심을 대접했다.

중앙동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한 해를 보내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떡국을 만들어 과일, 음료와 함께 직접 배식하며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안상숙 중앙동 새마을부녀회장은 "비록 떡국 한 그릇이지만 어르신들을 모

시고 함께 나누니 마음이 훈훈하고, 더욱더 활기찬 새해가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화영 중앙동장은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봉사를 해주신 중앙동 새마을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 이번 떡국봉사처럼 진심으로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새해를 맞아 9일 관내 중앙경로당을 찾아 40여 명의 어르신에게 떡국으로 점심을 대접했다.

겨울방학 독서교실 '겨울을 읽다'

전주시립도서관, 인후·평화·효자도서관서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을 위해 다채로운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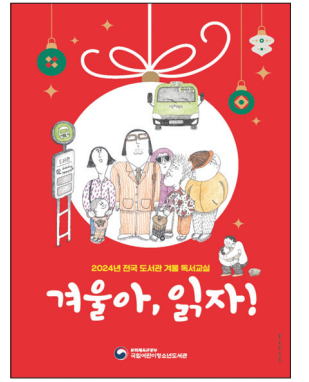
전주시립도서관은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9일부터 인후·평화·효자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서 '2024년 겨울방학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겨울독서교실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108회째를 맞은 이번 프로그램은 3개 시립도서관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45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겨울을 읽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독서 교실에서는 '말죽 할 법과 호랑이' (서정오, 보리)와 '겨울을 만났어요(이미애, 보림)', '눈 아이(안녕달, 창비)' 등 겨울이 담긴 그림책을 이용한 독서 활동을 비롯해 △방패연 만들기 △전통 팽이치기 놀이 △나무의 눈이 책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이번 겨울독서교실 참가자 중 우수 학생 6명에게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과 전주시장장도 수여된다.

이와 함께 시는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위해 인후·송천·건지·금암·아중·삼천·효자·평화도서관 등 각 시립도서관에서 겨울방학특강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도서관별로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동·유아미술 △독서 △공예체험 △아동요리 △책놀이 △생활과학 △역사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전주시 도서관본부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자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도서관에서 즐거움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공동주택 노후 환경 개선 지원

전주시, 올해 총 6억4950만원 투입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꿔주기 위해 했다.

이와 함께 근로 인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비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도 지원해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올해 총 6억4950만 원을 들여 20세대 이상 노후공동주택 단지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사업비의 70% 이하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부담 없이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근로자 쉼터가 없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

상으로 한 쉼터 설치사업에 단지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기존 근로자 휴게시설의 환경을 개선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주소지에 따라 완산·덕진구청 건축과에 지원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와 노후도, 단지 규모, 재난위험도, 재신청 여부,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등을 고려해 3월 중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연말까지 옥상 방수, 외벽 도색, 옥상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후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김옥기 기자



제10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월 17일(수)~1월 18일(목)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및 주관: 전주매일신문사
전라북도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

